+

'때이른 폭염' 채소·과일값 폭등…서민 부담 가중

최근 무더위 물가상승 '히트플레이션' 2주 새 수박 24% ↑···배추·복숭아도 농림부 "수급 안정·부담 완화책 추진"

때 이른 폭염에 광주 지역 채소와 과일 가격이 치솟아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최근 2주 사이 폭염으로 인한 이른바 '히 트플레이션'(Heatflation·열을 뜻하는 'heat'와 물가 상승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 현상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 통정보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 수박 한 통의 소 매 가격은 3만1천950원으로 3만원을 넘어섰다. 불과 2주(지난 3일·2만5천800원) 사이 23.8%나 올랐다.

지난해와 비교(2만1천336원)하면 49.7%가 상 승했고 평년(2만1천21원)에 비하면 52%가 치솟 았다.

평년 가격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가격 중 최 대·최소를 제외한 3년의 평균값이다.

수박은 날씨의 영향으로 작황도 좋지 않았는 데 지난달 말부터 지속된 폭염으로 인해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며 수박값이 치솟은 것으로 풀이 된다.

폭염에 취약한 대표 품종인 배추와 상추도 최 근들어 가격이 뛰는 상황이다.

이날 기준 배추 한 포기 소매 가격은 4천800원 으로 전년(4천828원) 대비 1% 올랐지만 2주 전(3 천113원)과 비교하면 56.8% 상승했다.

상추(적·100g)도 같은 기간 1천89원에서 1천18 ()원으로 2주사이 8.3% 비싸졌다.

과일 가격들도 급격하게 오르는 추세다. 배(신고·10개)는 전날 기준 5만2천250원으로 지난해 (7만8천520)와 비교하면 33.5% 하락한 반

복숭아(백도·10개)는 8일 2만4천200원에서 1 7일 2만8천267원으로 불과 9일만에 16.8% 올랐 다.

면 2주 전에 비해 9.1% 상승했다.

이 같은 가격 상승 원인은 때 이른 폭염으로 생육이 부진하고 산지에서 낮에 작업을 하지 못

하는 등 공급량 감소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최근 이상기후 등 이른 폭염으로 인해 여름철 물가 상승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상황 에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는 지 적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수급 안정 및 소비자 부담 완화 대책 추진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폭염과 장마 등 생육 부진 이 우려됨에 따라 생산량 감소 시 정부 가용 물 량 3만5천500t(톤)을 하루 100-250t씩 도매시장 등에 탄력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 방출량 은 가락시장 하루평균 반입량의 25-50% 수준이

또한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폭염 대응 가 하는 행사도 추진한다.

축 피해 최소화 TF'를 구성·운영해 지자체·생산 자단체 등과 함께 24시간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 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오는 7월6일까지 3주간 '여름 휴가 철 농축산물 특별 할인 지원' 사업을 전국 1만2천 개 대형·중소형마트에서 추진, 1인당 할인 한도 를 2만원으로 확대하고 품목당 최대 40%까지 할 인 혜택을 받도록 한다. 전통시장 130개소에서는 별도로 100억원 규모의 현장 환급행사(8월 4-9 일)를 진행한다.

아울러 식품기업과 유통업체가 주관으로 대 형마트, 편의점 등에서 라면, 빵, 김치, 아이스크 림, 주스, 삼계탕 등 가공식품을 최대 50% 할인 /안태호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농협,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 참가업체 모집

가공식품·우리술육성등쌀소비확대기대

농협전남지역본부가 '2025 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 참여업체를 선발한다.

17일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쌀 돼 총 7개 부문에서 우수 제품을 선정한다. 가공식품과 전통 우리술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쌀 소비 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최되는 '202 5우리쌀·우리술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 참여 업체를 오는 8월1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K-라이스페스타 품평회는 우리 쌀과 전 통술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진행되며 쌀

가공식품 부문은 ▲일반업체 조리제품 ▲일반 업체 비조리제품 ▲농협 제품 등 3개 부문, 우리 술 부문은 ▲발효주류 저도주 ▲발효주류 고도 주 ▲약·청주 ▲증류주류 등 4개 부문으로 구성

심사는 전문가, 소비자, 서류 및 현장 평가 등 4단계로 이루어지며 이를 통해 총 28점의 우수 작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우수 업체 에는 오는 11월28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K-라이스페스타 개막식에서 총상금 2억5천900만 원과 상장이 수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K-라이스페스타 공식 홈페이지(www.k-ricefesta.co.kr)를 통 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품평회 일정 및 부문별 세부내용 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

이광일 전남지역본부장은 "K-라이스페스타 는 전남 쌀 가공식품과 우리술 산업의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전남 지 역의 경쟁력 있는 많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 여해 전남 농식품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널리 홍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상건설 순창에 명품아파트 264세대 공급

시행사 하이랜드제일호와 맞손 입주자 라이프스타일 충족 주력

전북 순창에 명품아파트가 들어선다.

17일 대상건설에 따르면 부동산 개발사업 전 문기업 하이랜드(주)의 특수목적법인 하이랜 드제일호(주)와 최근 공동주택 신축사업 약정 을 체결하고 순창 최초의 명품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키로 했다.

순창 순화지구에 공급되는 분양아파트는 전 용면적 84㎡ 209세대와 112㎡ 55세대 등 총 264세 대로 구성된다.

시행사인 하이랜드제일호는 최신 주거 트랜 드를 적극 반영해 입주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 족시키는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대상건설은 대상그룹 계열 건설업체로 현재 순창군에 청정원 대상 공장을 운영하는 등 지역 에서는 친화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순창 순화지구는 전북개발공사가 조성 한 순창 최초의 공공택지지구로 택지 조성이 완 료됐으며 농협하나로마트 등 편의시설과 청소 년 커뮤니티센터, 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 입주가 예정돼 있다.

또 지난해 1블럭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아파 트는 성공적으로 분양이 마무리되는 등 순창군 내 최선호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동기 하이랜드제일호 대표는 "순창에서 지 역 친화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온 대상건설과 함 께 명품브랜드 아파트를 공급해 지역민과 상생 하는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한 차원 높은 주 거문화를 조성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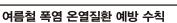
/임채만기자

광주경총, 맞춤형 채용 산학연계 워크숍

광주경영자총협회는 17일 "광주시교육청과 직 업계고 우수 취업동아리 담당교사와 회원 기업 인사담당자의 산학연계 워크숍을 제주도 일원에 서오는 19일까지 2박3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의 목적은 산학 협력 기반 진로지 도 및 채용연계 체계 강화를 위해 우수 취업동아 리 담당 교사와 기업 인사담당자 간 교류를 통해 현장 중심 진로지도와 취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및 산학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직업교육 현장의 현장성과 정책을 제고하기 위해 실시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취업동아리 운영 및 성과 확 산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우수 운영사례 공유와 교수 간 협력망 구축을 통해 직무체험과 멘토 링, 채용연계 등 후속 프로그램 설계 기반을 마 련하는 데 있다. /임채만기자





실외작업장 온열질환 예방 기본수칙

₩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작업 중 규칙적 물 섭취 작업장소 그늘 마련,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 무더위 시간(14시~17시) 옥외작업 최소화

(♦)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